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0월 11일)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한국불교 축제 연등회 인류유산 등재 '가시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 11월 16일 등재권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문화행사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가시화 되고 있다.

11월 1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날 우리 정부가 대표목록에 등재 신청한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심사해 '등재 권고'를 결의했다.

이날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 중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등회 보편적 가치 인정 '쾌거'
12월 결정… 유산 등재 확실시
원행스님 "12월 최종 등재 기대"
등재 시 韓 무형유산 21개 보유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 보완(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큰 문제가 없다면 평가기구의 결정이 받아들여기지 때문에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문왕 6년(866년)과 진성여왕 4년(890년)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看燈)'라는 기록이 전해져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 거행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연등회는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회향(廻向) 등으로 이뤄졌으며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오늘날에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지난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개최 △지역봉축위원회 연계 연등회 행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체계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등회는 지난 2018년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간 등재를 위해 연등회 보존위원회, 문화재청 등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등재신청 양식이 변경돼 수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 14~19일 열리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논의되며, 결과는 12월 16~18일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불교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국가무형문화제 제122호 연등회는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유구한 시간 동안 민족과 함께한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권고 결과는 연등회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월에 열릴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연등회가 최종 등재되면 한국은 인류무형문화유산을 21개 보유하게 된다. 이중 불교 관련 무형유산은 영산재와 대목장이다. 이밖에도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김장 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 해녀 문화, 씨름 등이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관련 칼럼 6면〉



(재)한마음선원은 11월 15일 안양본원서 제32회 한마음선원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착용한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이 어린이 신도에게 연비의식을 진행하는 모습.

"마음 속 코로나 업식 지우는 연비를"

한마음선원 11월 15일 제32회 수계법회 봉행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안양본원서 제32회 한마음선원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본원과 지원서 동시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수계 인원은 총 278명으로 수계자만 안양본원서 계를 받고 연비는 국내외 25개 각 지원에서 받았다. 특히 안양본원은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본원 법당 3층과 5층으로 나누어 동시에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교계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우리도 이렇게 작은 규모로라도 수계 법회를 진행하게 돼 각 지원의 신도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연비를 하는 스님들은 대행 큰스님이 내려주신 계를 지니고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더욱 마음을 내어 코로나 업식이 벗겨지도록 하자. 온라인으로 연비를 받는 분들은 비록 팔에 연비 자국은 남지 않지만 마음에 연비 자국을 남기자. 법계에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 한마음선원=노덕현 기자

군불교 총본산 '홍제사' 포교기지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11월 16일 불사 · 운영방안 공개

한국불교의 새바람, 군포교를 책임질 '군불교 총본산 계룡대 호국 홍제사'가 지역포교도 담당하는 포교전당으로 구성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16일 서울 용산 호국 원광사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룡대 홍제사 불사계획 및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2021년 11월까지 조성 예정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는 1만 3000여 평 대지에 대웅보전을 포함한 '법당'과 교육연수시설로 구성된 '교육관' 영역으로 나뉘어 불사가 진행된다. 법당 불사는 조계종과 군종특별교구가 60여 억 원의 공사비로 진행하며, 교육관 불사는 약 50여 억 원의 군 예산으로 이뤄져 총 110억 규모의 대작불사가 될 전망이다.

법당은 불자들의 신행 수행공간으로서 1층 공양간, 2층 다목적홀, 군불교 역사전시실, 어린이법당, 3층 대웅보전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관은 2층 규모로 총 24개 객실과 1개 지대방으로 구성돼 군불교 미래를 짊어질 군법사들의 체계적인 교육공간이자 불자들이 템플스테이와 명상을 체험하는 포교와 전법 공간이 될 예정이다.

특히 계룡대 홍제사는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해 군종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계자들이 많은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불사와 함께 군포교 전진기지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계룡대 홍제사가 다른 군법당과 다른 점은 교육관 시설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군승 연수회나 수련회, 군승의날 행사 등을 임대를 하여 사용했다. 이번에 자리하는 교육관은 24개 객실과 1개의 다목적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이곳에서는 군종특별교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불련, 파라미타 연계수련회 등 포교 전법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매년 3~4회 진행되는 군법사 연수를 비롯해 영관급, 위관급, 군종병, 군가족 템플스테이 등도 활용 가능하다. 군종특별교구는 이밖에도 홍제사 불교대학 개설, 참선과 명상 등 프로그램 운영, 다도 · 서예와 같은 문화프로그램 상설화 등도 준비 중에 있다.

선묵 혜자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단 안팎의 관심으로 불사 첫삽을 뜨게 됐다. 부처님을 모시는 성전을 건립하는 공덕은 한량없다"며 "홍제사 신축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이 나라 국군 장병들이 이곳에서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 참불자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호법 신장 역할을 다하는 전당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4일 계룡시 계룡대 불사 현장부지서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060)700-0108, 불사동참계좌(국민은행 477401-01-237619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차주 상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20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ONTACT 2020
서울붓다 페스티벌
12.12.SAT
오후 2시 | BTN 온라인 생중계

코로나19 극복 · 한반도 평화 기원
온택트 금강경 독송 정진

❶부 오프닝 퓨전국악<권> · 춤비슬 무용단 · 미디어타악 WⅢU
❷부 본행사 온택트 금강경 독송 정진 <10만 수보리의 합창>
❸부 축하공연 트롯 스타 송가인 · 김경민
세종국악밴드 · 테너 석인모 · 봉은사 국악합주단

행사문의
(사)날마다좋은날
02-733-7277
everygoodday.org

주최 | (사)날마다 좋은날 주관 | 2020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조직위원회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